

1940년대 전반기 만주이민소설의 세 유형*

- 안수길의 《北原》에 나타나는 현실 반영의 방식 고찰

오양호*

- I. 서론
- II. 이농형 농민소설의 지속과 변화
- III. 세태소설의 지속
- IV. 신변소설의 확산과 그 변모
- V. 결론

【요약】

안수길의 《북원》은 이농형 농민소설, 세태소설, 신변소설 등 세 유형의 작품들로 구성된 창작집인데 이런 소설이 모두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벼>, <목축기>, <원각촌>, <새마을> 등은 이농형 농민소설이 변화되는 시대와 만나면서 그 테마가 지속되다가 굴절되는 유형의 현실주의 소설의 갈래이고, <토성>, <바람>, <부억녀>는 1930년대 후반의 세태소설과 동일한 발상에서 있는 작품들이다. <토성>에서는 일제말기의 사회상이 아편밀매란 사건을 통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윤리의식이 타락하는 이민사회가 입체화되었다. <바람>은 정혼을 하는 처녀의 계산된 행동을 통해 전

* 이 논문은 2006년도 인천대학교자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인천대학교 교수

통적 가치관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정히 드러내 보인다. <부억녀>는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자愚者의 인간상을 통해 예각화시켰고, 그런 작가의식의 소재가 현실주의에 가 있다.

<함지쟁이 영감>, <차중에서>, <4호실>, <한여름밤>은 1930년 중후기 순수문학의 한 갈래로서 나타난 신변소설이 1940년대 전반 기 일제의 침탈행위와 만나면서 나타나는 반응을 문제화시킨 작품들이다. <함지쟁이 영감>, <차중에서>는 하층민에게는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경제침탈이 심리적 문제에까지 충격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도 훼손시키는 양태를 검증하고 있다. <4호실>, <한여름 밤>은 작가의 내면심리를 두 사람의 병자 주인공을 통해 표현했다. 이것은 일제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보호심리, 가학심리, 운명론자로 서사화하는 소설적 기법에 의해 표현됨으로써 문학의 효용론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수길의 초기 소설은 1930년대 신변소설이 거둔 문학적 성취, 시대상황을 지식인적인 절망으로 수용했던 세계관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이 상징적 수법을 활용한 현실주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1940년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문제작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안수길의 《복원》의 소설사적 의의는 역사주의적 접근이 아닌 형식주의적 방법에 대입되어야 하고, 이 소설 집은 한국소설사에서 제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I. 서론

서사장르로서의 소설이 한 시대의 사상적 요소, 관습, 풍속, 가치 등 사회 생활상, 국가 또는 포괄적 사회조직, 그리고 현실 너머

의 정신적 신념까지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논리가 아니다. 1940년대 전반기의 한국소설의 경우도 사정은 다를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기의 많은 자료는 연구와 평가 대상에서 보류되거나 제외되고 있다. 이런 원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소설사에서 1940년대 전반기는 다른 장르사가 그러하듯 문학사적 기술이 극히 간략하거나 생략되어 있다. 조동일의 《한국문학 통사 5》만 “일제 패망 직전의 상황”의 향을 통해 이 시기를 주로 만주간도의 이민 문학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¹⁾ 이재선의 《한국현대소설사》²⁾나 김윤식·정호웅의 《한국소설사》³⁾는 한국현대소설사를 기술한 대표적 저술이지만 1940년대 전반기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건너뛰었다.

조남현은 1940년대 전반기를 통속소설론, 대중소설론, 순수소설론, 생산소설론, 전쟁소설론, 장편소설론, 가족사소설론, 관념소설론, 모델소설론 등의 소설유형이 논의 되고, 그런 소설이 발표되던 시기로 정리한다.⁴⁾ 그러나 이런 연구 역시 이 시기 이민소설의 유형이 생성되고 그 밑에 몇 개의 중 개념의 소설 갈래가 나타나면서 현실을 문제 삼던 사실事實을 간과하고 있다.

《복원》은 1944년 이민의 땅 간도에서 항상 망명문인으로 자처한⁵⁾ 안수길의 최초의 창작집이다. 12편의 중단편이 수록된 이 단행본에 대한 독자적 고찰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이 글은 앞의 항목에서 살펴본 연장선에서 《복원》에 수록된 작품의 유형을 검토하려 한다. 그것은 해리르빈이 말한 바와 같이 문학은 문화를 반영하기보다 그것을 굴절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⁶⁾, 문학은 도수가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제4판), 지식산업사, 2005. pp. 523-7.

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출판사, 1993.

4)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참조.

5) 안수길, 《명아주 한포기》, 문예창작사, 1977, <용정·신경시대> 참조.

있는 렌즈로 그것을 통해 보는 인간사는 과장 되거나 축소되거나 형태가 바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 논리를 안수길의 《북원》에 가설로 세우고, 그것을 1930년대 말기의 한국소설, 즉 이농형 농민소설, 세태소설, 신변소설의 변화와 지속의 페러다임에 대입해서 해석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다. 그리고 이런 논증을 통해 《북원》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 나아가 문학사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되는 효과이다.

II. 이농형 농민소설의 지속과 변화

이농형 농민소설은 소설의 테마가 농촌농민의 이농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소설을 지칭한다. 이농형 농민소설은 이태준의 <꽃나무는 심어 놓고>(1933)에서 그 최초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후 이 작품은 이기영의 <원치서>(1935),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1936), 이석훈의 <이주민 열차>(1933), 안전민의 <이민시대>(1941),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1941)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⁶⁾

<꽃나무는 심어놓고>는 후덕한 지주 김의관이 무엇에 써 버렸는지 그 많은 땅을 결국 일본인 지주에게 넘기고 망해 버리자, 그 소작농이던 방 서방네 세 식구는 빚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계획된 생활도 없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나 방 서방의 처 김 씨는 가난한 서울 생활을 이겨내지 못해 죽어 버리고, 병든 어린 딸마저도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6) Harry Levin, *Literature as an Institution*, 이 논문은 이상섭, 문상덕, 김병익이 평주한 <Selected Modern Critical Essays>(영어영문학회편, 영미어문총서 21969) pp. 201-8에 재수록 되어 있다. 인용부분은 p. 214, 마지막 단락에서 가져옴.

7) 오양호,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pp. 232-3.

떠나게 된다.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한 비정의 서울 생활에서 완전히 망해 버린 방 서방은 그래도 지게 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꽃나무 심어놓고 떠난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태준의 <농군>이 이농형 농민소설의 다른 하나의 예이다. 앞의 <꽃나무는 심어 놓고>에도 그렇지만 이 소설에 나타나는 이농하는 이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식민지 농촌사회의 현실과 삶의 양상을 보여 준다. 이 소설은 살 길을 찾아 만주로 이민 간 한국의 농민들이 중국인들의 벼농사의 방해 작업과 탄압을 이기고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는데 성공한다는 이야기이다. “히끗히끗 붉은 거품속에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오는 사람의 시체”와 함께 눈에 대일 물이 들어올 때, 주인공이 내지르는 소리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절규가 아니라 논자리에 델 물이 마침내 성공하여 들어오는데 대한 환호성이다. 죽음과 맞바꿔 눈에 델 물을 끌어내었던 것이다. 이농민들의 이러한 집념은 비록 고향의 농토를 떠나 온 이민이라 할지라도 농본적인 의식 속에 그대로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농형 농민소설에 나타나는 작품의 양상은 주로 4개의 갈래로 나타난다.

첫째는 소작농으로 지주에게 착취당하고 시달리다가 그나마 불일 땅도 빼앗겨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만주간도 등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탄광이나 노동관에 노동자로 팔려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다. 첫째의 경우는 술거하고 고향을 아주 떠나는 사람들이고(제1형), 둘째는 대개 돈을 벌어 금의환향하겠다는 사람들이다(제2형). 셋째는 대부분 주인공들이 금의환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고향 없는 사람들이 되거나, 막벌이 도회지 노동자로 전락하는 유형이다(제3형). 마지막 넷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민문학에 나타나는 이농민이다(제4형).

위의 네 유형 중 본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1유형과 제4유

형을 고찰해 보자. 이석훈의 <이주민열차>는 살기 어려운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서는 김 서방네 일가의 이야기다(제1유형). 김 서방은 원래 자작농으로 과히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시골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인조견과 고무신이 퍼지는 등 세상이 변모하는 사이에 고치 값도 떨어지고 각종 세금이 늘어나는 판에, 어느덧 김 서방은 금융조합의 빚으로 해서 가난한 소작농으로 추락해 버렸다. 나중에는 간도로 가려고 했으나 노자조차 변통할 수 없어 산골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생활도 어느 여름날 산사태가 밀어닥쳐 집이 파묻히려던 순간 무명치마 하나를 가지러 방에 들어갔던 아내가 산사태에 갈려 죽고, 아들도 폭우 속에서 잃어버리자, 결국 김 서방은 두 살 난 딸 하나만을 데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기 좋다는 남경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주지하는 대로 일제의 한국 이민정책은 1908년 동양척식회사가 창립되면서 시작하여 1926년까지(17회) 계속되었다. 이 결과 근 1만호의 일인농민이 한국에 이주하여 왔고, 이것은 또한 조선 농민의 토지 상실과 이농현상을 불러 일으켰다.⁸⁾ 조선농민의 이농 현상이 일제 된 것은 일인의 농업 이민이라는 것이 새로 개간한 토지가 아니라, 한국인이 소작하고 있는 비옥한 토지, 그것도 교통이 편리한 전국 곳곳의 문전옥답만 골라서 차지하고 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일제는 그들의 농업이민을 통하여 일인을 한국농촌의 지주로 만들고, 한국농민을 한국이나 만주의 소작인으로 축출하였다. 1926년까지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은 약 30만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의 동척의 토지조사사업 때문에 경작지를 상실하고, 무작정 만주 이민을 감행한 영세 농민들이다. 한편, 일인은 1925년 동척 간도 출장소를 둔데 이어 1933년 신경지점을 설치하

8) 윤병석 외, 《한국근대사론 I》, 지식산업사, 1977. p. 69.

고, 1936년에는 선만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인의 만주 이민을 추진하였다. 이런 계획적인 이주 정책의 결과 1945년경에 이르러서는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이 150만에 달하게 되었다.⁹⁾ 그러나 만주에서의 한국인의 생활이란 3분의 1가량이 지팡살이었고 소작료도 6할이나 되어 참혹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생활도 토지를 빼앗겨 소작할 땅도 없어 방랑의 신세가 되어 산야나 노변에 쓰러진 채로 죽어 가던 반도내의 사정보다는 나았으므로 이주의 대열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주민 열차>는 이런 민족적 비극의 시기에 쓰였고, 이런 민족적 비극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다.

제4유형 역시 일인들의 위장된 이민 정책에 꼭두각시처럼 조종되며 생활을 보장할 무엇이 없으므로 빼앗으면 빼앗길 뿐이요, 쫓기면 쫓길 뿐이며, 생활의 불안에 공포를 느끼면서¹⁰⁾ 이역에서 살아가려던 그러한 이민의 이야기이다.

제4유형을 이루는 이농형 농민소설은 안수길의 <복원>에 수록된 <벼>, <목축기>, <새벽>, <원각촌>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 작품은 이민지역 농민의 생활상을 다루고 있고, 그 생활상이란 이주 및 이민의 압박자로 군림하는 본토박이 중국인과 생산 계급으로 들어서는 새로 이주한 조선인과의 대립 문제로 나타난다.

<벼>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소설의 주인공 박천수는 조선에서 중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장 배척의 주모자로 실직하고 만주로 와서, 매봉둔에 이농한 농민의 자제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짓는다. 그러나 중국군이 학교에 불을 지름으로써 후세 교육의 꿈은 여기서도 실패하고 농사를 짓게 된다. 하지만 중국군이 또 눈까지 빼앗으려 들자, 천수는 맨 앞에 서서 맨주먹으로 이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흙 속에 두 팔을 깊이 박고 흙

9) 위의 책, p. 69.

10) <고국을 이별한 만주동포>, <조선농민>, 1929. 10. p. 18.

과 벗모를 가슴에 힘껏 안은 채 “우리가 피땀으로 풀어 놓 땅.....
 꿈쩍말구 이대로 엎드린 채 이곳에서 모두 죽자.....”는 찬수의 행
 동에서 이런 점이 잘 나타난다. 지켜온 가난과 착취를 떨치고 새
 로운 삶의 터전으로 찾아온 세계에서 다시 만난 이민족의 박해와
 억압에 죽음으로써 맞서는 것은 자기 방어의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이농형 농민소설은 이농의 비극을 가
 장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 작품군이라 할 수 있다.

안수길의 <벼>, <새벽>, <새마을>(속 새벽), <목축가>, <원각촌>
 은 이농형 농민소설의 지속된 양상을 보여준다. <벼>는 이농형 농
 민소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태준의 <농군>과 주인공, 결말의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어디서 또 총소리가 물방을 친다.

물은 철록 철록 소리를 쳐 둔덕진 데를 따라며 휩쓸며 내려 쏘린
 다. 종아리 깨가 대뜸 지나친다. 삽과 팽이를 둔덕으로 끌어 올렸다.

동이 튼다.

두간통 대간선이 허 - 영계 물빛이 부푸러 오른다. 물은 사뭇 홍수
 로 내려 쏘린다. 팽잇자루가 떠나려 온다. 삽자루가 꺾신꺾신 떠나려
 온다.

“저런!”

사람이다! 히끗 히끗, 붉은 거품 속에 잠겼다 떴다 하며 내려오는
 것이 사람이다. 창권은 쨍쨍거리며 뛰어 들었다. 노인이다. 총에 옆구
 리를 맞은듯 한편 바지가랭이가 피투성이다. 바로 창권이 할아버지 운
 명할 때 눈을 쏘여 감겨주던 경상도 사토리하던 노인이다. 창권은 가
 슴에서 딱하고 무슨 탕개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차라리 제가슴 복판
 에 총알이 와 콧 백혔으면 시원할 것 같았다.

피와 물에 흥건한 노인의 시체를 두 팔로 쳐들고 둔덕으로 뛰어 올
 랐다.

‘아!.....’

창권은 다시 한번 놀랐다.

몇달채 꿈속에나 보던 광경이다. 일당무제, 논자리마다 어름장처럼

새벽 하늘이 으리으리 변뜩인다. 창권은 더 다리에 힘을 줄수 없어 노인의 시체를 안은채 꿩 주저 앉았다. 그러나 이내 재쳐 일어났다. 어머니와 안해에게 부축이 되며 두 주먹을 허공에 내저었다. 뭐라고 인지 자기도 모를 소리를, 악을 써 질렀다. 웃쪽에서 웃쪽에서 악쓰는 소리들이 달려나려 온다.

물은 대간선 언저리를 철버덩 떨귀 휩쓸면서 두간통 붓통이 뿌듯하게 내려 쏜린다.

논자리마다 넘실 넘친다.

아침 햇살과 함께 물은 끝없는 별판을 번져 나간다.

이태준의 <농군> 결말

한방의 총성이 새벽하늘에 쉼 없는 여음을 남기면서 울렸다.

앞장 선 젊은이가 방축에 배를 붙이고 엎드리자 같은 순간에 눈 속을 달리던 사람들도 벼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논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시퍼런 총칼을 든 육군 십여 명이 건너편 방축 위에 올라와 총부리를 이쪽에 겨누는 것이 눈에 띈었다.

군중은 모두 눈물에 몸을 잠그고 벼를 가슴에 안은 채 논바닥에 파묻히게 배를 붙였다.

찬수도 엎드렸다.

몸에 깔리운 벼모.

찬수는 흙 속에 두 팔을 깊이 박았다. 그다지 저항이 없이 손은 흙속으로 파고 들었다. 흙 밑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갈코리로 틀어 흙과 함께 벼모를 가슴에 힘껏 안았다. 가슴이 들북하였다. 오른쪽 볼을 바로 밑에 있는 벼모에 갖다댔다. 얼굴 반편을 벼모가 푹 찼다. 볼에 닿는 벼모의 촉감을 전신에 느끼자 왈칵 울음이 솟았다. 얼마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가 엎드린 자리에서 한 칸쯤 앞에 향옥이가 엎드린 것이 눈에 띈었다. 그 조금 앞에 어머니가 엎드려 있었다. 머리를 돌리어 살피니 아버지도 흥덕호와 함께 맨 뒤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얼굴을 들었다가 잠수하듯 눈물 속에 파묻었다. 물이 그의 머리 위로 넘쳤다.

물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누군지 고향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피땀으로 풀어논 땅,꿈쩍말구 이대루 엎드린 채 이

곳에서 모두 같이 죽자.....”

찬수는 물에 머리를 박은 채 다시 한 번 흙 속의 팔에 힘을 주어 벗모를 끌어안았다.

모두들 엎드린 채 육군은 총뿌리를 겨눈채 아무런 동요도 없이 무시무시한 침묵이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마을의 개들이 요란히 짖고 매봉너머로 아침해가 빠금이 머레를 내밀었다.

학교 불탄 자리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다.

안수길의 <벼> 결말

인용된 부분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수전개발에 목숨을 걸었다. <농군>에서는 총에 맞아 사람이 죽었고, <벼>에서는 군인들의 총 앞에서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죽어도 좋다’는 식이다.

둘째, 가족이 함께 나섰다. <농군>에서는 주인공 창건과 그의 어머니, 아내가 동네 사람과 함께 나섰고, <벼>에서도 주인공 찬수, 그의 어머니, 아버지, 동네 사람이 함께 총부리 앞에 몸을 던지고 논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셋째,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조선에서 입만한 이농민들이거나 그 2세들이다. 그래서 수전, 곧 논농사 짓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거친 땅을 개척, 거기서 새 고향을 새워 장차 그곳의 주인이 되려 한 사람들이다.

넷째, 크라이막스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대단원은 두 작품 모두 ‘새벽’이다.

다섯째, 주인공이 비교적 유식한 인물이다. <농군>의 창건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알고 차표를 검사하는 양복쟁이가 “어째 얼굴이 혼자 그렇게 하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벼>의 찬수는 이민 2세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경성에서 활동하던 이태준이 1939년에 창작한 <농군>과 간도에

서 활동하던 안수길의 1941년 작품 <벼>가 이렇게 유사하다. 이것은 이 유형의 소설이 간도문단에서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이농의 문제는 시대를 넘고, 한반도를 넘어 설 만큼 여전히 중대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원각촌>, <목축기>, <새벽>, <새마을>에서는 이런 이농형 농민 소설이 변화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새벽>에서 이런 현상을 확인해 보자. <새벽>은 만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인데 그 줄거리는 이러하다.

고향 함경남도 H읍에서 간도 M골로 이사를 온 우리 집은 호가네 지팡살이를 하였다. 빈손으로 살길 찾아와 정착 하느라 빚을 많이 졌다. 그러나 호가네 농사를 지어 주는 것으로는 빚을 갚으며 먹고 살아가기엔 어려워 아버지는 소금 밀수를 시작하였다. 소금 밀수가 목숨을 건 일이지만 가난을 벗어날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아버지는 이 모험을 시작했다. 이런 사실을 지팡관리인 박치만이 눈치를 채고 간계를 부린다. 그 통에 오히려 빚이 늘어난다. 우리 집이 빚으로 움푹 달짝 못하게 되자 만주 여자가 아내라 얼되놈으로 불리는 박치만은 빚을 담보로 나의 누이 복동예를 그의 첩으로 만들려 한다. 윤가네 지팡의 아들 삼손이와 연애를 하던 누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자결을 감행한다. 얼되놈의 첩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그걸 벗어날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누이를 데리러 왔던 박치만을 향해 아버지는 분통이 터져 죽이겠다고 덤빈다. 그러나 그가 데려온 패거리에게 맞아 실신을 한다. 어머니는 실성을 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가 치만이를 요절내겠다고 덤빈다.

경향과 소설의 결말을 연상시키는 이 소설은 간도 이민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가를 사실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빚진 이민의 약점을 이용하여 더욱 빚을 지운 다음 그 가족을 종처럼 부려먹고 딸은 농간하려는 얼되놈의 비인간적

횡포를 이농민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결말의 치열함이 경향과 소설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런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불의에 맞서나 힘이 부쳐 아버지는 실신을 하고 어머니는 실성을 하고, 어린 아들이 거대한 힘을 향해 돌진하는 양상은 일찍이 최서해가 문제 삼았던 현실주의 소설, <홍염>과 대동소이하다. 땅은 무한하나 실제 자기 땅은 하나도 없는 만주 천지에 나앉은 이농민의 현실이 선연히 부각되어 있다. 이런 이농민의 현실이 <목축기>에 오면 많이 변화된다. 작품의 배경이 농촌에서 대저 쪽으로 이동하고, 주테마이던 지팡살이, 농토개간, 새 농촌 고향 건설 등이 다른 문제로 바뀐다. <목축기>는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 논농사가 중심이 되는 순수 농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농민이 농토 개간이 아닌 목장 건설을 테마로 한 이 소설은 그 서사단락을 여섯 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 이농민들은 소의 현상을 한 와우산에 목장을 세우기로 한다. 주인공 찬호는 두만강을 건너 충청도 논산 종묘장까지 가서 종돈 70마리를 기차에 싣고 온다.

둘째 단락, 찬호가 농업선생으로서의 실패가 농업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음을 깨닫고 사표를 낸다. 퇴직 교사가 출자하여 세우려는 목장에 전력, 이상적인 목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 종돈과 8일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며 폐사를 막으려는 성실한 찬호의 성격이 소개된다.

셋째 단락, 양돈 전문가 중국인 노송老宋 소개. 그는 50년을 양돈 사업에 바친 인물로 찬호가 물고 온 종돈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넷째 단락,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찬호가 목장을 관리 하는 일을 묘사한다. 폐사 방지는 기후 문제가 아니라 사료에 문제가 있고, 돼지도 각종 예방주사를 놓아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술된다.

다섯째 단락, 겨울철이 되자 산짐승들이 먹이 감을 찾아 목장을

습격한다. 이에 와우 목장은 방책을 수리하고 셰퍼드를 구입해 가축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파수를 보며 돼지를 지킨다. 심야에 가축을 몰고 가려는 이리떼와 셰퍼드가 맞서 싸우는 사건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된다. 이농민소설에서 농민이 부당한 외부 세력과 맞서던 자리에 이런 사건이 들어와 있다.

여섯째 단락, 어느 날 밤 노송은 범에게 왼쪽 귀를 잃는다. 그 후 노송은 복수심 때문에 돼지까지 학대하며 짐승을 미워한다. 드디어 싸락눈이 내리는 날 노송은 사냥개를 앞세우고 창을 들고 범사냥을 나선다. 66세의 늙은 몸이지만 흑한과 맹수에 맞서는 강한 도전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와우 목장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이러한 줄거리에서 드러나듯이 <목축기>는 유축농 문제가 서사화 된 작품이다. 주인공 찬호는 이제는 학생들에게 귀농을 권유할 시대가 아니고, 백오십만 이민 동포의 팔팔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 배운 사람을 기다리던 시대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농업선생을 사임하고 목장건설에 나섰다. “지금은 암흑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그의 외침 속에는 순수농업이 아닌 유축농업으로 이농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진보적 계산이 들어 있다. 농민 속으로 뛰어 들던 지식인상이 유축농업을 주창하는 인간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넷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에서 보듯이 귀농을 선도하는 지식 청년의 자리에 수의사가 서 있고, 지광살이로 지주와 맞서고, 얼되놈과 싸워야 하던 사건이 목장을 노리는 맹수와 악조건의 기후로 대체되었다. <새벽>의 소연속 사건micro-sequence이 대연속macro-sequence을 이루고 이것이 핵사건kernel이 되던 서사구성과는 많이 다르다. <새벽>의 속편인 <새마을>에 오면 이 농민은 선주민의 학대를 기피하여 도시 노동자로 변신할 수 밖에 없는 삶의 또 다른 양태를 문제 삼는다.

III. 세태소설의 지속

세태소설은 작가가 살고 있는 동시대 사회현실의 재현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세태소설의 둘째 개념에는 작가들이 현실을 파악하는 인식의 틀로서 동시대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예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들과 생활양식, 사회적 관습들이 포함된다. 즉 집합적인 현실의 여러 양상과 구조적 양태가 소설 속에 전경화되어 드러나는 작품이 세태소설이다. 세 번째는 위와 같은 사회적 인식의 틀 위에서 자신의 고유한 서사적 논리에 의해 하나의 미적 완성을 이루는 유형의 소설을 가리킨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소설문학에 이 장르종이 한 때 유행하였다. 이를테면 채만식의 <탁류>, <천하태평춘>, 박태원의 <천변풍경>, 현덕의 <남생이>, 홍명희의 <임격정>, 김유정의 소설들이다.

이런 소설들은 묘사되는 대상을 통하여 독자에게 생생한 현실의 모습을 전달한다. 이 때 묘사되는 현실은 하나의 정신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작가가 자기를 의탁하려는 문학으로 평가된다.

《북원》에 수록된 <토성>, <바람>, <부억녀>는 1940년대 만주의 현실을 안수길의 고유한 서사적 논리에 의해 하나의 미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토성>은 만주국의 탄생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새나라의 탄생’으로 인식하는 작가의식이 문제되고 있고, <바람>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념이 전제되지 않은 엄혹한 생존권과 맞선 한 젊은 여성의 적나라한 현실 반응이다. <부억녀>는 우자愚者의 인간상을 통해 간고한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수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런 점은 이 작가의 초기 소설이 중요한 시대 중요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주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곧 민족적 현실을 조롱했는가, 반민족적 현실을 수락했는가의 문제로 소설사

또는 문학사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던 사실과는 아주 다르다. 현실주의 작품이란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세 작품은 당시의 사회, 식민지의 변방까지 뻗쳐 있던 사람들의 실상을 건드리고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 나타나는 현실이 얼마나 전경화되어 동시대의 사회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따져 보자.

① 하로밤 사이에 두덩이를 얻은 학수는 부리냥게 같은 분냥의 요재를 사가지고 문을 잠근방에 들앉어 솔뚜경우에다 진짜와 가짜를 퍼트려놓고 그것을 석노라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의 가슴은 또한 뛰었다

<인젠 화왕여관 절반은 지은셈이다.>

<여보 안주인!> 난옥이와 노닥거리면서도 일생의청이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거절한 명수의 일이 께심하기 짝없었다.

<그놈 이담 굶어죽는대두 핏진한푼 동정할놈없구 비적에게 쫓여간 대두 눈하나 깜짝할 개자식없어.....>

희망과 분노이외에 한가지 근심이 그의가슴을 두가지감정보다 더무겁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물건을 할빈까지 어떻게 운반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중략).....

<트렁크>에 넣어 그 <트렁크>를 제안진 좌석에서 먼 선반우에 옮겨놓고 시침이를 떼고있다가 슬적 들고 내릴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오르고 내릴때에 내용을 점점 당하지 말란법이 없다.

나중에 생각한 것이 통조림통과 축음기였다. 이것은 난옥이의피이기도 하였으나 신통하다고 무릎까지 쳤다.

통조림통의 밑바닥을 도려내고 그속에 물건을 넣은다음 그것을 남으로맨다. 그리고 진짜 간즈메통과 함께 한타(打)썸 새끼로 묶는다. 께쪽같은 상품이다. 이것하나로도 안전성은 만점이나 더 신중을기하여 축음기의 이용, 태엽을 꼬집어내고 그속에 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가지 물건을 각각 거리를 멀리하여 선반에 언저놓으면 만일의 경우가 생겨도 둘중의 하나는 살릴수있다는 것이다.

그우에 적은일이나 소홀히 하기쉬운 것, 납법(拉法)을 경유하여 직접 할빈으로 표를 사지 않고 처음 신경까지 직행하였다가, 거기서 할

빈행표를 다시 사는것등의 세심한주의를 거을리 하지않았다.¹¹⁾

② 서울가 공부하는 서방이 난봉이나서 학교도집어치고 내려왔다.
<저년과는 안살테니까 당장에 쫓쳐보내지않으면 죽겠소>

집안에선 독자인만큼 난봉은둘째로 죽는다는말에 겁이났다. 위협도 하고 달래기도하였으나 워낙 영석바지로자란터라 좀체로 어른의말을 듣지않았다.

.....(중략).....

<복숭아표>

부억녀는 금시에병짓거리면서 고무신을받았다. 받아서들고 뒤져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땅에가즈런히놓고 한쪽발바닥을 이쪽발등에데 썩썩하고 코신을신었다. 말이엇지큰지 발구락은들어갔으나 발꿈치가들어 안간다. 그런 것을 억지로 디러미니 고무가늘어나서 개가축복을메워놓은것같다.

<작지않소>

<작기는.....>

부억녀는 제가원하는물건을 남이사다주기는 이번이 난생처음이다.

<내 머슴살면서 모아놓은돈이 돈량되는데.....>하고 장송이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내었다. 헌겹지갑인데 새끼만한 망사를 칭칭감은 것을 끌로니까 세겹으로접엇든 지갑이 후두둑퍼진다. 제일깊은칸에 손을 쭉넣드니 돈, 돌돌만 것을 내어보인다.

지전인데모다보포래기가나고 풀이죽은 휴지같은것들로 이십오원과 잔돈 삼십팔전이다.

<자 우리이걸가지구 같이 만주에가서 맘놓구살지않겠소?>하고 제일 여튼칸에서 편지봉투접은 것을 내여들고

<우리육촌이 만주가있는데 작구오라구편지가왔소. 썩좋다오.¹²⁾

③ 사실 기차는 처녀순이의운명의 심판자임에 틀림없고 거기에는 정남이가 타고오는것이였다.

11) 안수길, <토성>, 《복원》(안수길 창작집), 예문당(동만총성 간도시), 1944. pp. 81-2.

12) 안수길, <부억녀>, 위의 책. pp. 132-43.

순이와 정남이는 정분난사이었고 손을잡고 오늘 이차를 타고 부락(部落)을탈출하려는것이였다.

순이는 거주민(既住民)의 딸 그러니까 제이세(第二世)였고 정남이는 작년봄전라도에서 입식한 개척민의 아들이였다.

둘의정분은 시간적으로 오래된것도물론 아니였으며 처음부터 손을 맞잡고 도망치거나 할것이 약속될정도로 심각한사이도아니였다. 다만 고향에서이발소 직공으로있었다는 정남이의 말끔한맵씨가 흙속에만무 처있든 순이의눈에 산뜻한호기심을 자아내게하였고 무퇴퇴한 흙의치 녀로서는 너무도빛나는 순이의용모가 정남이의마음을 두근거리게하였다. 그러나 그뿐 별다른교제도 또 그리할생의도 내지않고지내온 터이였으나 순이의 혼담(婚談)이 익어가기시작했을때부터 그들의사이는 갑자기가까워지게된것이였다.¹³⁾

인용문①의 이복형제 학수와 명수는 아편으로 생활의 전기를 삼으려는 인물들이다. 명수는 같은 면적에 콩을 심으면 수익이 15원인데 아편을 재배하면 한손(오십 평)만 해도 400원을 얻으니 아편을 심어 빚을 청산하고 결혼 비용도 마련하려 한다. 학수는 목단강 시가지에 여관을 세워 팔자를 고치는 방도는 아편 밀매뿐이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긴다. 가짜 아편을 만들어 신경을 거쳐 할빈으로 가져가 밀매를 하려는 행동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첩의 돈으로 인생역전의 기회를 만들려는 이 인물은 40년대 어떤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 성격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이념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시대사조를 타고 일신의 영달을 꿈꾸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주국에 아편 재배를 허용함으로써 이주 조선인이 만주국 정책에 동조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곧 생존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적이냐 반민족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잔인하다는 사실이 이

13) 안수길, <바람>, 같은 책, p. 113.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동생의 결혼 비용을 훔쳐서라도 여관을 마련해야만 하겠다는 학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간, 자주권이 아니라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환장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즉 이민족이 세운국가, 이민족의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사회상이 소설로 수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토성>은 1940년대 만주 조선 이민의 세태를 입체적으로 서사화하고 주목할 만한 현실주의 소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태소설로서의 발견의 시각은 이런 점에 근거를 둔다.

인용 ②에는 세 가지 인상적인 사건이 나타난다.

첫째는 어린 학생 서방이 바람이 난 것이고, 둘째는 복숭아표 고무신 한 켤레에 마음이 흔들리는 여주인공의 행동이며, 셋째는 머슴 사는 남자와 정분이 난 유부녀가 만주로 가자는 제의를 수락하는 행동이다. 첫째 사건은 우리의 근대소설에 빈번히 나타나는 신교육을 받은 남성들의 가정파탄의 전형이다. 둘째 사건에서 우리는 가난에 굴복하는 여인상을 대한다. 고무신 한 켤레에 여자가 마음을 판다면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다. 흔히 하루 저녁 위안부의 몸값이 신 한 켤레 값이라는 인간 비하의 말 속에는 타락한 사회의 윤리와 돈의 위력을 풍자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정상이 아닌 사회를 우회적으로 고발하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난봉이 난 철없는 가장이 신식교육으로 시건방이 들어 구식 아내를 내쫓는 모티브는 개화기 이후의 한국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인정세태이다. <부억녀>의 핵사건 역시 같은 모티브이다. 이런 점은 현실에 대한 깊은 추상작업 끝에 내린 작가의 판단이 이렇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억녀>를 세태소설로 간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이다.

셋째의 만주행 모티브는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고찰된 문제이다.¹⁴⁾ 다만 <부억녀>도 1930년대 말 1940년대 전반기의 주요 현실반영 소설에 특징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소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둔다.

인용 ③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여인상을 발견한다. 혼담이 거의 성사단계에 가 있는 처녀가 농부 신랑감보다 이발 기술이 있는 배우자를 하나의 갈등도 없이 택하는 행동이 그러하다. 순이가 송침지 아들에서 정남이로 마음이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송침지 아들로 되돌아 간 것은 애정과 무관하다. 애초부터 순이에게는 혼인은 하나의 생계수단이라는 의미였다. 정남이를 택한 건 전적으로 좋은 조건의 신랑감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어디에도 남녀의 정분이 나타나는 대목은 없다. 남자도 여자도 계산된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왜 그러할까. 비인간적인 사회라는 말이다. 왜 비인간적일까.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그만큼 힘이 드는 집단,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바람>은 신랑감을 재빨리 선택해가는 한 여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1940년대 만주 이농민 사회의 어떤 세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원》의 현실 반영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IV. 신변소설의 확산과 그 변모

1940년대 전반기의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순수문학에 대한 논의이다. 40년대 말에 집필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는 당시의 문단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1939년 <문장>6월초에 발표된 유진오俞鎭午의 <순수에의 지향>은 문학계에 물의를 일으킨 한 주제가 되었다. ……(중략)…… 유진오가에의 그 양논문 중에서 주조의 상실 이데의 상실을 말했고, 이원조李源朝는 1939년 1월 조선일보 지상에서 신인을 걸어 ‘문학주의 시대’를

14)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pp. 23-40.

논하며 신인의 특색은 오직 그 기술적인 면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¹⁵⁾

이러한 기술에서 지적하는 순수문학은 구체적으로 조지훈 등의 청록파, 소설에서는 최태응, 지하련, 임옥인 등의 데뷔작이었다.

신변소설은 이런 문학기류 속에 나타난 순수문학의 한 갈래이다. 가령 지하련池河連의 <결별>은 실존인물인 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소설의 전면에 내세우고 작가 자신은 뒷면에 세워놓고 다시 작가로서의 또 하나의 자기 위치를 제 3자적인 데 두고 남주인공에 대한 여주인공의 심리적인 음영을 관찰하고 있다.¹⁶⁾ 바로 신변소설적 기법이다.

신변소설은 작가가 자기의 생활체험이나 신변의 사실만을 다룬다. 일제 말기의 신변소설은 현실세계와 소설세계의 괴리에서 오는 상황 때문인지 작가의 신변사에 유독 그 테마가 집중되었다. 안수길의 <함지쟁이 영감>, <차중에서>, <4호실>, <한 여름밤>이 바로 이런 갈래에 서 있다.

<함지쟁이 영감>은 동인지 <북향>과 창작집《북원》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북향>후기에 ‘어고향於故郷 5.9’라는 기록으로 보아 안수길이 결혼을 한(1935)직후 고향, 함흥에 들렀을 때 견문한 소재를 작품화한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은 작가의 고향 함흥의 서호진이며 시간적 배경은 1935년이고, 작품집에 묶인 것은 1944년이다. 작가 안수길의 사적인 내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창작배경이 전형적인 신변소설의 그것이다.

함지쟁이 영감은 노친이(마누라) 없이 어린 남매 둘과 살고 있

15)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판), 백양당, 1949. pp. 380-93.

16) 위의 책. p. 386.

17) 《한국문학가 수기전집》, 평화문화사, 1971. pp. 134-43. 참조.

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노친 한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누구도 거지꼴인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남자는 이웃 장국밥집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보이는 동정심을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고향을 찾은 선생님, 나에게 중매를 써 달라며 두 번이나 부탁한다.

이 인물은 먹고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동네에 초상이 나가거나 잔치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드나들며 남이 하기를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고 아낙들과 방아도 짙어 주며 끼니를 챙긴다. 우리는 이 인물의 이런 행동에서 일체의 침탈행위가 우리 민족, 특히 하층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그것이 정신적 분열 증세에까지 이른 어떤 증후를 발견할 수 있다.

<차중에서>의 주인공은 걸인이다. <함지쟁이 영감>의 주인공과 성격이 같다. 이 걸인은 땀과 때와 흙에 절은 초라한 고의적삼을 입고, 차중에서 구걸할 때마다 자기는 간질병이 있으며 지금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말을 한다. 간도가 좋다고 해서 돈 벌러 왔다가 돈은 한푼도 못 벌고 몸만 상하고, 걸인신세가 되었으니 도와 달라고 사정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 이 인물은 결국 차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런 줄거리에서 핵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땀과 때와 흙에 절은’ 주인공이 연발하는 “고향가는 길”이라는 말이고, 이 인물에게 아무도 동정을 보내지 않는 행동이며, 이런 사건을 보고하는 나, 기자의 냉정한 시선이다. 관찰자가 기자인 것으로 보아 이 작품 역시 작가 안수길이 <만선일보>기자로 일하던 시대의 신변사가 작품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품에 내포된 현실 반영의 시각이 대단히 날카롭다.

당시의 한 평은 이 소설을 신문의 3면 기사거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품이라고 했고,¹⁸⁾ 또 이 주인공을 보고하는 관찰자 ‘나’가 조선인이면서도 동정심을 넘어서는 동족으로서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소설논리에서 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말기라는 상황에서 작가의 시선이 이러한 인물, 이러한 사건에 가 있다는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 선불리 감정적 진술을 함으로써 작품의 긴장미를 떨어뜨리고, 작가의식의 노출을 통해 개인이 의심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객관화된 작가의 시선이 냉혹히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묘사되다가 결국 이 결인이 차에서 떨어져 죽는 크라이막스 속에 이 작가의 냉혹한 현실고발 의식이 내재해 있다. 곧 누구도 동정하지 않고, 누구의 관심과 보호도 받지 못한 결인, 조선인의 죽음을 방관자의 시선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1940년대 초기, 만주며 간도가 ‘현실락구’라며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선전하던 일제의 정책이 모두 허구임을 드러내는 서사구조이다. 작가는 거지가 된 조선인을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장치를 통해 그런 현실, 간도가 살기 좋다며 하층민을 유혹한 현실을 결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리얼리즘 소설기법의 한 전형이다. 안수길의 이런 소설의 갈래를 1930년대 말 유행하던 신변소설의¹⁹⁾ 변화와 확대라고 분석하는 근거는 이런 논리 때문이다.

<4호실>과 <한여름밤>은 순수문학으로서의 신변소설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두 소설의 주인공이 모두 병자인데 <4호실>은 마준영이라는 폐병쟁이가 병마를 이기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다는 이야기이고, <한여름밤>은 “죽는 사람에게 피를 뽑아주면 그 사람대신으로 죽는다”는 속신을 믿는 헤임이라는 주인공이 한 혈족의 유전적인 병의 증후로 인하여 그도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피학심리와 죽음의 공포를 다룬 소설이다.

이러한 스토리는 작가 안수길이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투병했던

18) <만선일보> 1940년 9월 28일자 문화면. 김우철金友哲은 <차중에서>가 소품으로서의 신선미도 없고 단편으로서의 구성력도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19)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 백양당, 1949. pp. 315-22. 참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4호실>의 마준영은 바로 결핵환자이고, 헤임이 병으로 쫓기는 강박관념은 안수길이 당시로서는 재생하기 힘든 결핵에 쫓기던 피학심리의 작품화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소설 역시 신변소설의 일차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에는 <함지쟁이 영감>, <차중에서>에서 보던 현실검증의 작가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개인 신변사가 사소설적 시각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그는 그가 배튼 검붉은피덩어리를 물그림이보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마음은 착 가라앉았다. 그렇게 그의 신경을 자극하던피 - 아아 그러나 이제와서는 그것이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상하였다. 머얼리가버린 생활과도같이 그는그것을 냉정하게대할수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새로운 아지못할세계가 은은한 범종소리를타고 그의마음속에스미여들물깨달았다.²⁰⁾

이상한 미신이 그들의발을비끌어매었다. 그것은 죽는사람에게 피를 뽑아주면 그사람대신으로죽는다는것이였다 ...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옴바가 이미걸었고 그리고집을 이을옴바의 아들인 조카마자 마찬가지로 견지않으면 안될길을 가는것이 애석할것이였다.²¹⁾

<4호실>은 주인공의 절망적인 운명을 극복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면, <한여름밤>은 운명에 매달려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상을 문제 삼고 있다.

전자의 주인공은 여름철에 원산의 석왕사로 요양을 왔는데 그 옆방의 박창호라는 사람은 주인공 마준영이 폐병쟁이라며 떠돌고 다닌다. 본인이 그 병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보호심리, 생에 대한 애착심리라 할 수 있고, 폐병쟁이가 맞다는 것은 파괴심리, 가학심

20) 안수길, <4호실에서>, 같은 책, p. 202.

21) 안수길, <한여름밤>, 같은 책, p. 103.

리라 할 수 있다. <한여름밤>의 여인은 '인명은 재천'이라는 운명론자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수동적 태도뿐이다. 죽음의 테마를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재만시절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폐결핵을 앓고 있던 안수길의 이런 생의 인식태도는 작가 자신이 처한 내면 심리 상태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식민지 정책에 밀려 나라 밖으로 쫓겨난 존재론적 문제를 절망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헤임이라면, 살아남아야 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마준영이고, "당신은 날 받아놓은 생명이야, 불쌍하지만 곧 죽을 것이니 결핵이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어"라는 것이 박창호의 시각, 마준영을 에워싸고 피를 말리려들던 건장한 지배자의 논리가 아닐까.

<한여름밤>은 주인공만 운명론자가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가족도 그렇다. 가족, 친척이 동일한 세계관이다. 신화론적 관점에서 재생을 상징하는 물, 바다를 작품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 작품의 이런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절망뿐이니 재생을 바랄 수 밖에 없다는 인생관에서 있다. 병자 헤임이 죽기 직전 굳이 바다를 찾는 행위가 그러하다. 이 작품이 피지배자의 운명수용이라면, <4호실>은 지배자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생존본능의 다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주변사를 사소설의 기법을 통해 서사화하면서 그것을 고도의 상징으로 육화시킨 작품이 <4호실>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안수길의 초기소설은 1930년대 순수소설로서의 신변소설이 거둔 문학적 성취, 시대상황을 지식인적인 절망과 어둠으로 인식했던 세계관을 뛰어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상징적 수법을 교묘하게 발휘한 현실반영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1940년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다.

안수길의 《북원》은 이농형작품, 세태소설, 신변소설 등 세 유형의 작품들로 구성된 창작집인데 이런 소설이 모두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곧 <벼>, <목축기>, <원각촌>, <새마을>등은 이농형 농민소설이 변화되는 시대와 만나면서 그 테마가 지속되다가 굴절되는 유형의 현실주의 소설의 갈래이고, <토성>, <바람>, <부역녀>는 1930년대 후반의 세태소설과 동일한 발상에 서 있는 작품들이 드러났다. <토성>에서는 일제말기의 사회상이 아편밀매란 사건을 통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윤리의식이 타락하는 이민사회가 입체화 되었다. <바람>은 정혼을 하는 처녀의 계산된 행동을 통해 전통적 가치관이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냉정히 드러내 보인다. <부역녀>는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자愚者의 인간상을 통해 예각화시켰고, 그런 작가의식의 소재가 현실주의에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지쟁이 영감>, <차중에서>, <4호실>, <한여름밤>은 1930년 중후기 순수문학의 한 갈래로서 나타난 신변소설이 1940년대 전반기 일제의 침탈행위와 만나면서 나타나는 반응을 문제화시킨 작품들이다. <합지쟁이 영감>, <차중에서>는 하층민에게는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경제침탈이 심리적 문제에까지 충격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도 훼손시키는 양태를 검증하고 있다. <4호실>, <한여름 밤>은 작가의 내면심리를 두 사람의 병자 주인공을 통해 표현했다. 이것은 다시 일제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보호심리, 가학심리, 운명론자로 서사화하는 소설적 기법에 의해 표현됨으로써 효용론적 목적수행에 효과를 주었다. 이런 점에서 안수길의 초기소설은 1930년대 신변소설이 거둔 문학적 성취, 시대상황을 지식인적인

절망으로 수용했던 세계관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이 상징적 수법을 활용한 현실주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1940년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문제작임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평가는 안수길의 《북원》의 소설사적 의의는 역사주의적 접근이 아닌 형식주의적 방법에 대입되어야 하고, 그 결론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설사적으로 제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Key words): 이농형 농민소설(enlightenment peasant novel), 세태소설(The novel of manners), 이민사회(a emigrant society), 잡종사회(The hybrid society), 제2의 고향(The second hometown), 재난(The calamity), 일제침탈(The imperialist of japan), 1940년대 초기 시대상황(The situation of early 1940's), 이민문학시대(The period of a emigrant literature).

참고문헌

- 김열규 외,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
 이은숙, 「문학지리학 서설」, 『문화역사 지리』 제4호, 1992
 蘭信三, 『‘滿洲移民’의 歷史社會學』, 京都, 行路社, 1995
 吳養鎬, 『日帝強占期滿洲朝鮮人文學研究』, 文藝出版社, 1996
 尹輝鐸, 『日帝下滿洲國研究』, 一潮閣, 1996
 정호웅, 「한국현대소설과 만주 공간」, 1999년도 학진보고논문
 윤희녕 외, 『주체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9

- 이은숙, 「1930년대 북간도지역에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 『대한지리학회지』77호, 1999
- , 「한국인의 고향」, 『대한지리학회지』81호, 2000
- 윤휘탁, 「만주국의 ‘민족협화’운동과 조선인」, 『한국민족운동사연구』26집, 2000
- 남창룡, 「만주제국조선인」, 신세림, 2000
-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 김현주, 「근대초기기행산문의 전개양상과 문학적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연구』16집, 2001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 세상, 2001
- 윤대석, 「일본의 그늘」, 『작가』, 2002, 여름호
- 고부응, 『초민족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 정종현, 「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와 가능성」, 『상허학보』9집, 2002
- 김 철,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2002
- 한국근대문학회, 「친일문학의 재인식」, 한일근대문학회 제7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
- 大村益夫, 『中國朝鮮族文學の 歴史と展開』 祿蔭書房, 2003, 東京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시대」, 역사비평사, 2003
- 이병근 외,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 서울대출판부, 2003
- 오양호, 「일제 강점기 북방과 시에 나타나는 시의식 고찰1」, 『한국문학논총 제35집』, 2003
- _____, 「북방과시와 방랑의 정체」, 『한민족어문학 43집』, 2003
- 한설야, 「대륙」, 김재용·김미란·노혜경 편역,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2003
- 김재용, 김미란 노혜경 편역,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 19-20세기』, 역락, 2003
-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통권 24호, 2004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申奎燮, 「만주국의 협화회와 재만조선인」, 『만주연구』제1집, 2004, 부산
-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연구」, 어문학 86호, 2004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5
강심호, 「대중적 감수성의 탄생」, 살림, 살림지식총서153, 2005
김태준 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상·중·하), 논형, 2005
조동일, 「문학지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
공간』, 논형, 2005
김 철,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윤대석, 「1940년대 만주와 한국문학자」, 『한국학보』, 2005년 봄호

The Three Type in Early 1940's Emigrant Manju Novel

Oh, Yang-Ho

The aim of this thesis is elucidate BukWon(北原) Which is one of the most out standing work of the novels written by Ahn Su Gil early in the 1940's. Ahn Su Gil, in this works, deal with the background of emigration which began to escape from the famine, colonial policy, plundering of farmland. In particular the writer focuses on depicting how those settlers have accustomed themselves brutal realities in the emigrant area(Manchuria) during the period of the Manchukuk(滿洲國). Above all, the writer seeks to represent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and history and to reveal the various actual circumstance of peoples hard lives.

The works of Ahn su gil, Bukwoun(北原) consist of the peasant novel, novel of manners, Ichroman. These novels, are related to social structure, departure from native place and construction of new home village to the northern district.

Byeo(벼), Mokchukgi(牧畜記), Wongakchon(圓覺村), Saemaetul(새마을) belong to a type of rural enlightenment peasant novel which are refraction of realism novel in the latter half 1930's. Toseong(土城), Baram(바람), Bueoknyeo(富億女) are known to a type of the novel of manners in the 1930's. Toseong(土城) describe emigration society which has broken by imperialist of Japan. Baram show question of marriage who are changed because of the poverty. Bueoknyeo(富億女) create a character who eke out a scanty existence in emigration society.

Hamgijaengiyounggam(함지쟁이영감), Chajungeseo(車中에서), Sahosil(四號室), Hanyaerumbam(한여름밤) are the novels which became a subject a colonial policy early in the 1940's. Hamgijaengiyounggam(함지쟁이영감), chajungeseo(차중에서), verify economic impac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se novels are a novel depicting the author's private life.

In the same way, I studied Sahosil(4호실), Hanyeorumbam(한여름밤) as a point of psychological novel. As the result, this two works are known as mentality of self protection a cruel treatment mental state and a fatalist that give form to the realism novel.

In this respect, early novels of Ahn Su Gil is one of the outcome of realism novel which is formed through the writer historical and social consciousness.

In conclusion, Bukwon described a phenomenon of society with the background of the period of Korean people sufferings in calamity, concrete description of the emigrant's lives vividly. In this sense, Bukwon deserves to be regard as the outstanding meaning of a literary history in the works of early 1940's.

오양호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아파트 63동 404호

전화번호: (032)770-8080

전자우편: hoo04742@incheon.ac.kr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